



2023년 10월 9일(월, 축일), 요요기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야외예배가 우천으로 인해 순복음동경교회의 대성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목 차

- P2 : 2023년 하계축복성회
- P3 : 샤프로성전 창립 5주년 축복성회
- P3 : 순복음동경교회 샤프로성전 5주년 기념축사
- P4 : 담임목사 컬럼 “승리를 위한 무장”
- P4 : 런던 성회 “조용기 목사 추모예배”

가족신문은 Web페이지와 LINE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eb페이지



공식LINE



2023년 하계축복성회 2023. 8. 9(수)-11(금)

2023년 8월 9일(수)~ 11일(금), 장마오송 목사(타이페이 신티엔싱타오교회)와 장한업 목사(타이페이순복음교회)를 강사로 초청해 하계축복성회를 열었습니다.

8월 9일과 11일에 말씀을 전한 장마오송牧사는 46년 전 신티엔싱타오교회를 개척해 대만 최대의 교회로 성장시키고 해외 5개 지교회와 대만 내 70개 교회를 설립한 대만

교회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9일과 11일에 장마오송 목사의 설교 통역을 담당하고 10일에 말씀을 전한 장한업 목사는 1992년에 타이페이순복음교회의 2대 담임으로 취임해 에스라사역연구소와 대만영산신학원을 설립하는 등 현재 대만 부흥을 이끄는 복음 전파자입니다.

성회 첫 날 : 네 시작은 미약하여도 (장마오송 목사)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7—

성회 첫 날, 장마오송 목사는 ‘네 시작은 미약하여도 (욥기 8:7)’란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자신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 열등감, 불가능 등의 부정적 생각은 버리고 용감하게 전진해야 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창대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갈망하고 성령님의 임재로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그리고 순복음동경교회에 성령의 불이 역사하기를 선포했습니다.



성회 둘째 날 : 인생의 전환점 (장한업 목사)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야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중략—이런 일이 세 번 있는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사도행전 10:1-16—

성회 둘째 날, 장한업 목사는 ‘인생의 전환점 (사도행전 10:1-16)’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 만나면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처럼 고정관념을 깨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을 통해 일본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라고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설교 후 김경숙 선교사의 특별간증이 있었습니다. 간증 전에 우리 교회 굿피플선교회에서 준비한 선교헌금을 굿피플선교회장이 김경숙 선교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대만 타이퉁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경숙 선교사는 빈곤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센터 설립과정 이야기과 이 교육센터를 거쳐간 아이들이 성장해 다른 아이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나누게 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것으로 나눠야 한다”고 전하고 간증을 마쳤습니다.

성회 마지막 날 : 큰 산아 네가 무엇이나 (장마오송 목사)

큰 산아 네가 무엇이나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가랴 4:6—

성회 마지막 날, 장마오송 목사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나 (스가랴 4: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산(문제)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산이 사라집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해 승리하는 순복음동경교회 성도들이 될 것을 축복했습니다.



삿포로성전 창립 5주년 축복성회 2023. 9. 6(수)



—전략—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후략—

—마태복음 6:25-34—

9월 4~7일, 홋카이도선교회를 중심으로 한 순복음동경교회 선교단이 홋카이도를 방문해 9월 6일(수) 오후 7시에 삿포로성전 창립 5주년 축복성회를 드렸습니다.

시가끼 시게마사 담임목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25-34)’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의지하여 염려하지 않을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평안을 얻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며 축복했습니다.

설교 후, 홋카이도선교회장 박희경 권사가 하나님의 인도로 세워진 삿포로성전의 설립과정을 설명하며 축사를 전했습니다. (자세한 축사내용은 아래를 참고)

2018년 9월, 순복음동경교회는 삿포로성전을 창립해 홋카이도지역의 영적 거점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삿포로신학교는 시가끼 시게마사 담임목사가 故조용기 목사의 유지(遺志)를 받들어 코로나 사태 이후 2022년 4월에 개교했습니다.

앞으로 삿포로성전이 더욱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 홋카이도 지역을 변화시키기를, 그리고 삿포로신학교를 통해 일본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삿포로성전 5주년 기념축사



46년 전 순복음동경교회가 여의도순복음교회의 해외 장자교회로 세워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순복음일본총회는 일본 대도시 중심으로 80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동경 23구, 요코하마, 오사카, 나고야에 이어 일본 제 5의 도시인 삿포로에 교회설립을 하기위해 총회의 선교사가 세 번에 걸쳐 도전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선교, 특히 삿포로 선교의 어려움을 실감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2017년 가을, 시가끼 시게마사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의 강한 인도 속에서 삿포로성전 창립에 관한 비전을 받게 되었고, 기도하면 기도할 수록 그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2018년 3월, 시가끼 목사님은 아직 눈이 남아 있는 삿포로를 혼자 방문하였고 교회에 적합한 건물을 알아봤지만 마음에 와 닿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4월에도 방문했지만 적합한 건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5월에도 역시 같은 결과였지만 동경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동산 업체의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예산보다 3배의 규모이지만 학원이 세운 건물로 선생님들을 위한 기숙사용 맨션이 팔린 매물이 나왔는데 보고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이 땅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삿포로성전과 삿포로신학교에 대한 구상이 생겼고 전부터 기도하고 있던 100개 교회의 비전으로 이어져 목사님은 동경으로 돌아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후 확신이 왔고 1주일 후 다나카 장로님을 비롯한 주요 기관장 7명과 함께 삿포로를 방문해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전원 찬성을 거쳐 삿포로 성전의 매입이 결정된 것이 6월의 일이었습니다.

교실을 예배당으로 리모델링해 2018년 9월 3일에 순복음동경교회 성도 100명과 함께 현지를 방문해 창립예배를 드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태풍의 영향으로 모든 항공편이 결항된 가운데, 저희들이 이용할 항공사만 다소 지연은 있어도 운행되어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어제의 일처럼 느껴지는데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로부터 5년간 최진규 목사님, 황만용 목사님, 배종숙 전도사님을 거쳐 올해 3월, 한세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하셨던 김정일 목사님께 또 한번 도약의 기회가 온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19사태 속에서 삿포로신학교 설립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수집사회와 초대 홋카이도선교회장 윤소영 권사님을 비롯한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예에 힘입어 2022년 4월 제 1기생을 맞이하여 개교예배가 거행되었고 올해는 제 2기생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삿포로성전의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홋카이도 선교의 기지로써의 활동은 물론, 일본 선교의 원동력이 되는 선교사를 양성하고, 삿포로농학교가 니타도 이나조, 우치무라 간조, 미우라 아야꼬를 배출한 것처럼 제 2의 조용기 목사님을 배출하는 훌륭한 교회, 신학교로서의 부흥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23년 9월 6일 순복음동경교회 홋카이도선교회 박희경 권사

시가끼 시게마사 담임목사 컬럼 “승리를 위한 무장”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 에베소서 6:13-17 —

가인의 살인으로 아벨의 피가 흐르게 된 이후 인류에 전쟁이 없던 때는 없었습니다. 왜 나라들은 군비증강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일까요? 표면상으로는 국방을 위한다 하지만 그 연장선상에는 침략에 의도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육의 전쟁 뿐 아니라 영의 전쟁에 있어서도 논리는 같습니다(고전5:8~9).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장이 필요합니다.

첫째, 진리의 허리 띠를 띠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몸은 허리가 중심이며 허리가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추방된 것은 마귀의 거짓 진리, 즉 “하나님같이 된다”에 미혹되어 진리의 띠를 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띠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 죄사함을 믿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천국이 우리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요14:6).

둘째, 의의 호심경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죄는 히브리어로 “하마루티아”인데 쏜 화살을 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피하고 살게 하기 위해 화살을 쏩니다. 우리들은 의의 호심경으로 공격을 방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셋째, 평안의 복음의 준비된 신발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신발은 사람의 행위를 말합니다. 유감스럽지만 인류에는 바른 행위를 행할 힘이 없기 때문에 행동을 일으키면 죄, 불의, 추악, 저주, 절망, 전쟁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평안의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과의 화해의 신발을 신어야 치유의 신발, 축복의 신발, 영생의 신발을 신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렸다”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이 신발을 신으면 마귀의 속삭임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넷째,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환경과 감각으로 총공격을 해옵니다. 이 공격을 믿음의 방패로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취하는 것은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 바랍니다.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것이지만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부귀영화라 해도 한때의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것은 평안충만을 말하며 최고의 행복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소위 하나님 말씀의 검을 취하는 것입니다. 앞서 나온 다섯개의 무장도구는 모두 방어용이지만 검은 유일한 공격용입니다. 말씀의 검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7,000여개의 약속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손에 7,000의 검이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롬8:31)

하나님께서 주신 갑옷으로 전신 무장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병에서 치유로, 빈곤에서 부유함으로 전진하여 여러분들이 밟걸음하는 모든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런던성회 ‘故 조용기 목사2주기 추모예배’ 2023. 9. 14(목)

9월 14일(현지시각), 시가끼 시게마사 담임목사가 사무총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DCEM(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의 주최로 영국 최대 한인교회인 런던순복음교회(담임 김용복 목사)에서 ‘故 조용기 목사2주기 추모예배’가 열렸습니다.

런던의 성도들과 유럽지역 선교사 그리고 세계의 순복음교회 선교사들이 모인 가운데 추모예배가 열렸습니다. 감사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는 “1967년 4월 영국 웨스트민스터 센트럴 홀에서 열린 부활절예배가 조용기 목사님의 첫 해외선교 사역이었습니다. 그러한 영국 땅에서 조용기 목사님 2주기 추모예배를 드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라고 말하고, “안디옥 교회의 영광(사도행전 13:1~3)”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설교 후, DCEM이 준비한 추모영상이 방영되어 생

전에 조용기 목사가 남긴 공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시가끼 시게마사 담임목사는 추모사를 통해 “조목 사님을 모시고 세계를 120바퀴 돌며 70개국 350개 도시에서 성회를 함께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가신 목사님을 기억하며 성령 충만한 믿음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고 전하며 선교사들과 런던의 성도들을 축복했습니다.

